

건강의료

말 못할 고민 '불임' 진단과 치료

난관 복원술 실패땐 시험관 시술해야

불임 갈수록 증가…10쌍중 1~2쌍은 고통

호르몬 요법서 인공수정까지 치료법 다양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온 요즘, 우리는 주위에서 아기를 갖지 못한 부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제 불임은 부부가 인내하고 숨겨야 할 사생활이 아니라 정확한 검사와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불임부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불임의 정의와 원인=정상적인 부부가 한 달 이내에 임신할 확률은 약 10~20%정도이며, 1년 이내 자연임신 성공률은 약 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불임이라면 인위적으로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졌는데도 1년 이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한두 쌍은 불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궁금증과 스트레스, 조현 연령의 증가로 불임환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개 불임원인은 크게 남성요인과 여성요인으로 나뉜다. 남성불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비뇨기계 염증이나 수술, 정관폐색, 당뇨병 또는 소년기 고환 정체 및 음낭부위가 지속적인 고열에 노출되는 환경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무정자증이 있다. 또한 호르몬 이상에 의한 내분비학적 원인의 불임도 있다.

여성 불임의 요인으로는 난관, 자궁, 자궁경관, 복강 내, 면역학적 요인에 의한 불임과 원인불명 불임을 나눌 수 있다. 원인 불명 불임은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로 불임 원인 중 20~40%를 차지하

는데, 이는 면역학적 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임의 진단=불임환자 중 상당수가 불임의 결정적인 원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첫 방문시에 남편을 동반하는 것이 좋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 검사가 가장 먼저 진행되며 남성요인이 밝혀지면 검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검사하는 것이 좋다.

만약 남성에게 문제가 없다면 여성은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한층 복잡하다.

여성요인의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가지 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산전검사를 하게 되는데 빈혈·결핵·간염·매독·풍진항체·자궁암검사를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불임검사가 시작되는데, 우선 생리 시작일부터 3일째가 되는 날 기초호르몬 검사를 통해 생리주기가 일정하고 배란이 잘 되고 있는지, 난소의 기능은 좋은지, 혹 폐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기본적인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데도 지속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정자와 난자, 수정란의 이동통로인 나팔관과 자궁이 잘 소통되는지 확인하는 자궁난관 검사가 가장 먼저 진행되며 남성요인이 밝혀지면 검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검사하는 것이 좋다.

◇불임증의 치료=남성 불임의 치료는 정자 형성 장애의 경우 호르몬 요법과 인공수정 등이다. 또한 요도나 정관이 막히거나 좁은 경우 항생제 치료나 수술로 해결할 수 있으며, 심인성 발기불능은 내과나 신경정신과적 정신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약물 치료와 정계정맥류절제술, 부고환관문화술, 정관복원술과 같은 수술을 통해 불임을 치료할 수 있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미세수술적 부고환관자 체취술, 고환조직 정자체취술과 같은 불임치료 방법이 있다.

여성 불임의 치료는 배란장애치료, 무월경, 무배란 주기증, 산발성 무배란증, 다낭성 난포 증후군등 대개 내분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치료될 수 있다. 난관이상으로 생기는 불임치료는 난관 복원술이 대표적이며 수술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시험관 애기 시술을 시행한다. 자궁이상에 의한 불임은 자궁기형의 경우 호르몬제 투여나, 근종제거수술로, 자궁발육부전의 경우 난소호르몬을 투여하여 불임을 치료할 수 있다.

〈시엘병원 산부인과 정효영 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엘병원 정효영 산부인과 원장이 30대 여성을 상대로 무월경, 배란장애 여부 등 불임 원인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버려지는 자신의 치아로 빼이식 재료를 만들며 임플란트 시술에 이용하는 '자가 치아 빼이식'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 치과병원에 '한국 자가치아 빼은행 및 한국 가족치아 빼은행'이 개설된다.

'자가치아 이식재'를 분당 서울대병원 김영균 교수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한 조선대 김수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조선대 치대 교수회의실에서 '한국 자가치아 빼은행 및 한국 가족치아 빼은행' 개소식 및 현관식을 개최한다.

치주염이나 심한 충치로 치아를 발달해

조선대 치과병원 '자가치아 빼은행' 개설

버려지는 자신의 치아 저장했다 임플란트 시술

야 하는 경우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하지만 잇몸뼈에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를 심는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시술이 어렵다. 따라서 잇몸뼈 이식을 하고 몇 개월을 기다린 후 임플란트를 심기도 하며 식립 후에도

제자 빼이식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동안 사용하던 빼이식 재료인 자가골(자신의 뼈), 동종골(가공된 타인의 뼈), 이종골(가공된 소, 돼지의 뼈) 및 합성골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재료로 꼽히는 것이 자가골로, 이는 동종골이 이종골보다 유전

적, 전염적 위험에서 안전하고 치유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김수관 원장은 임플란트 식립 전 대부분의 환자에서 기능성이 사라진 치아의 발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 사람의 치아를 이용한 생체재료 개발에 대해 연구한 끝에 '자가치아 이식재' 개발에 성공했다. 자가치아 이식재는 치아에 함유된 유기질인 콜라겐을 보존시키는 방법으로 잇몸뼈와 동일한 골기질을 갖추어 기존의 골이식재료보다 임플란트의 기능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성화센터, 응급심장질환특성화센터 등 2개 센터에 지정됐다. 또 전남대병원은 중증외상특성화센터로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목포국립병원과 순천성가톨릭병원이 각각 응급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 등 3개 센터에 모두 지정됐다. 목포충강병원은 응급뇌혈관·응급심장질환 등 2개 센터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8~2009년 특성화 후보센터를 시범운영한 후 질환별 인력·장비·진료설정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이번 특성화센터 지정기관을 선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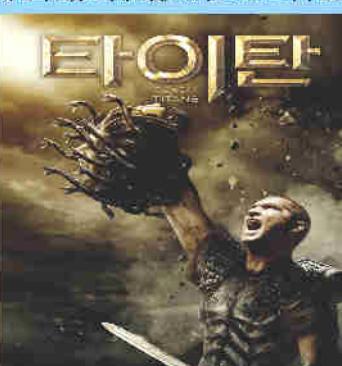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화/안/내

메가박스

1관 타이탄 (12세) 최고급관
2관 그린 존 (15세) / 타이탄 (12세)
3관 반기운 살인자 (15세)
4관 크레이지 (18세)
5관 (3D)타이탄 (12세)
6관 프로포즈데이 (12세)
7관 서터 아일랜드 (15세)
8관 진 나온 남자들 (15세)
9관 폭풍전야 (18세) / 육혈포 강도단 (15세)
10관 타이탄 (12세)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내 고객이 한편 : 2시간 30분 초과시 점심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 런던외국사거리 ☎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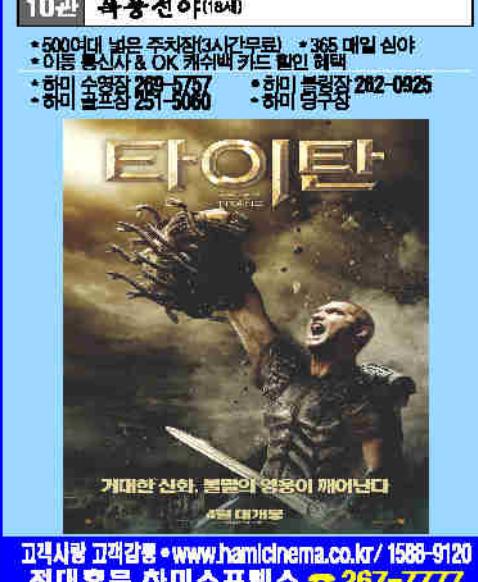
1관 폭풍전야 (18세) / 그린 존 (15세)
2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3관 프로포즈데이 (12세)
4관 반기운 살인자 (15세)
5관 집 나온 남자들 (15세)
6관 (3D)타이탄 (12세)
7관 타이탄 (12세)
8관 크레이지 (18세)
9관 타이탄 (12세)
10관 타이탄 (12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1588-7941 상담원 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레이징 피닉스 (15세) / 콜링 인 러브 (15세)
2관 그린 존 (15세)
3관 솔로몬 케인 (18세)
4관 의 형제 (18세)
5관 비밀에 (18세)
6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전체)
7관 타이탄 (12세)
8관 타이탄 (12세)
9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10관 폭풍전야 (18세)



고객지원 고객감사 www.hamicinema.co.kr 1588-9120
전대 후문 아미스포츠스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프로포즈데이 (12세)
2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 그린 존 (15세)
3관 타이탄 (12세) / 서터 아일랜드 (15세)
4관 크레이지 (18세)
5관 반기운 살인자 (15세)
6관 (디지털 4K)타이탄 (12세)
7관 (3D)타이탄 (12세)



백발였던 영화신작 *www.cinus.co.kr*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타이탄 (12세)
2관 타이탄 (12세)
3관 짐나온 남자들 (15세)
4관 반기운 살인자 (15세)
5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6관 그린 존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앞 호남타워6층)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게 한정

봄 나들이철 눈 건강 관리법

요즈음은 화사한 벚꽃과 따뜻한 바람으로 봄 나들이가 잦은 계절이다. 하지만 봄철에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황사와 더불어 계절과 생체리듬의 변화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미생물의 활성이 증가해 눈 질환 환자가 늘어난다. 봄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안질환인 알레르기성 결막염, 황사나 먼지에 의한 결막염,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결막염, 건성안(안구건조증)의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냉찜질로 완화
소금물로 눈 씻으면 증상 더 악화

◇알레르기성 결막염=봄철 꽃가루나 풀, 동물의 털, 진드기, 먼지 등과 같은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눈이 쉽게 가렵다는 특징이 있고, 충혈되면서 눈물이 많이 나며 끈끈한 흰 살 같은 접액성 분비물과 함께 이물감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환자수가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알레르기의 원인을 알 때는 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대부분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대증적인 치료를 한다. 치료로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며, 깨끗한 찬 물에 눈을 대고 깜박이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면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

◇황사나 먼지에 의해 유발되는 결막염=대부분 일시적인 자극에 의한 결막염으로 충혈, 따끔움, 눈물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보통 인공눈액으로 씻어내거나 항생제, 소염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점안으로 호전된다.

예방 위해서는 황사가 심한 경우 외출을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 외출하는 경우 보호안경을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인공눈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눈이 가렵다고 눈을 비비거나 소금물로 눈을 씻으면 증상이 더 악화할 수 있고 안구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삼가야 한다. 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전남대병원 안과 윤경철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증질환 특성화센터' 광주·전남 5개 병원 선정

'응급심장질환'을 비롯해 '응급뇌혈관', '중증외상' 등을 24시간 진료·수술·치료하는 '중증질환별 특성화센터'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광주·전남지역 5개 의료기관을 비롯해 전국 47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대 핵심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응급심장질환 특성화센터 22개소, 응급뇌혈관 특성화센터 22개소, 중증외상 특성화센터 35개소 등 전국 47개 의료기관을 '중증질환별 특성화센터'로 지정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조선대병원이 응급뇌혈관특